



5면

'벽거리에서 산업으로, 미래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 지사 “전북, 지방주도성장 선두에 설 것”

긴급 기자회견 열고 도정 주요 현안 설명

완주·전주 통합에 “가능성 문제 아닌 생존 걸린 분기점”
반도체 산업에 “재생에너지 풍부... 가장 준비된 선택지”
군산조선소 관련 “현상 유지 아닌 완전 재가동 단계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 주도 성장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겠다”며 완주·전주 통합과 미래 핵심 산업 육성, 군산조선소 재도약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전북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기적 요인으로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지방이 주도하고 지역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께서 최초로 통합을 건의했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지금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정부 교체 이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국정 기조가 명확해졌고,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인센티브도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완주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걱정과 고민의 무게를 또 또한 깊이 알고 있다”며 “완주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확장의 가장 준비된 선택지”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께서 최초로 통합을 건의했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지금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정부 교체 이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국정 기조가 명확해졌고,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인센티브도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완주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걱정과 고민의 무게를 또 또한 깊이 알고 있다”며 “완주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완주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걱정과 고민의 무게를 또 또한 깊이 알고 있다”며 “완주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완주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걱정과 고민의 무게를 또 또한 깊이 알고 있다”며 “완주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완주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걱정과 고민의 무게를 또 또한 깊이 알고 있다”며 “완주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반도체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으로 “전북이 지방주도 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께서 최초로 통합을 건의했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지금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정부 교체 이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국정 기조가 명확해졌고,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인센티브도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 공식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민생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민생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런 고용허가제 적용은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런 고용허가제 적용은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중별로 살펴보면 건물청소수요 수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용허가제 적용은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북 서부권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
오늘까지 농도 높을 듯
도 보건연, 실외활동 등
도민 생활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mu\text{g}/\text{m}^3$ 를 넘길 때 발령된다. 이날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은 오후 14시 82 $\mu\text{g}/\text{m}^3$, 15시 104 $\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도 오후 3시 89 $\mu\text{g}/\text{m}^3$ 를 기록하였으며 4시에 75 $\mu\text{g}/\text{m}^3$ 이상을 넘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의보는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서쪽 해안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 지고 남동진하면 서 전 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전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기 중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는게 좋고 이와 함께 차창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 대기 정보시스템(<http://air.j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한 줄의 해답, 대한민국을 잇다!

대한민국 미래에너지를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국전력이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 1.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 : 재생에너지
- 2.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 : 지역균형발전
- 3. 멀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 : 초고압직류송전
- 4. AI시대 핵심 국가첨단산업 중 하나 : 반도체

나.자립 에너지고속도로망
2030년 서울권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을 '나자립'으로 잇는
탄력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